

엘니뇨, 다른 지역에는 위협이지만 아르헨티나 농업에는 호재 전망

(El Nino, a threat elsewhere, likely to help Argentina's crops, experts say)

강한 엘니뇨 현상이 세계 여러 지역의 농작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올해 하반기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후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미국 기후예측센터(CPC)는 목요일 발표에서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엘니뇨 현상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도, 5월 팜유 수입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평균 이하

(India palm oil imports edge higher in May, remain below average)

인도의 5월 팜유 수입량은 4개월 만의 최저 수준에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평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주요 업계 단체가 금요일 밝혔다. 이는 팜유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정유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두유 구매를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계 최대 식물성 유지 수입국인 인도의 팜유 수입이 평소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경우,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재고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팜유 선물가격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FLC, 사료용 옥수수 5만 5천~6만 8천 톤 구매

(South Korea's FLC buys 55,000 to 68,000 tons of corn, traders say)

유럽의 거래업체들에 따르면, 한국의 사료업계 협의회(FLC)가 금요일 국제 입찰을 통해 선택적 원산지 조건으로 사료용 옥수수 약 5만 5천~6만 8천 톤을 구매했다. 이번 입찰에서 한 선적 물량은 무역업체 미쓰이로부터 구매되었으며, 톤당 약 257.35달러(운임 포함)에 계약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추가 항만 하역 비용으로 톤당 1.50달러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한국 MFG, 대두박 4만 5천~6만 톤 구매

(South Korea's MFG buys 45,000 to 60,000 tons of soymeal, traders say)

유럽의 거래업체들에 따르면, 한국의 MFG는 국제 입찰을 통해 대두박 약 4만 5천~6만 톤을 구매했다. 구매 물량 가운데 한 선적분은 COFCO로부터 구매되었으며, 추가 항만 하역 할증료를 포함한 톤당 약 396.61달러(운임 포함)에 계약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Thomson Reuters